



...우리의 目標...

- 1 在日僑胞의 救靈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십자가에 회개와 부활의 주께로서 오신 성령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

부활하신 예수께서 최후에 부탁한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또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다 즉 성령으로 같이하신다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의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류하라" 하셨다

이와같이 우리가 구원에 복음을 전한다고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전하는 개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만일에 이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의 역사는 끝나고 말것이다 그리스도

의 부활후 모든 기적의 사실은 모두가 다 전도의기초 위에 둔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주동이 되시고 우리 인간은 그 성령의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일종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것 뿐이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순종케 하셨다"고 하였다 기독교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증거이다 성령의 역사는 목적이 확실하다 교회와 전도는 다 성령의 지도 밑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개인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증명할수있다 자기중심에 신앙생활 자기교회 중심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중만할

수 없을것이다 주와 하나님 중심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지난 4월 4일에 순교를 당한 비폭력주의 흡인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흡인 김목사의 부인이 시체에 달려서 울면서 하는말이 "이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다 김목사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나의 목에 권총으로 쏜것은 광폭한 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할것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것이라고 할것이라 고하였다 이것은 곧 성령의 지시대로 흡인과 백인 사이에 원수의 담을 헐고 그리스도의 화평에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의 정신을 확실히 나타내는 증언이다 그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의 평화에 고귀한 정신을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일생을 마치는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없었다 이것은 수동적 입장에있는 부인회의 모습을 나타낸것이라 할수 있으나 앞으로는 능동적인 복음을 몸소 이해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할것이다 그리고 장래의 계획을 세우되 사회속에서 소공의 역할을 할수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것이다

이 연수회에서 얻은 우리에게 대한 방향지시의 말씀은 아래와 같다

- ① 교회 (부인회) 는 전도 교육과 사랑의 봉사에 힘쓸것 구체적으로는 교회안에 장학사업을 이트켜 이세를 육성할것
- ② 우리는 신앙에 열심을 가질뿐만 아니고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
- ③ 우리는 일본에 사는 동포들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삼고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것이다

관서지방회 여전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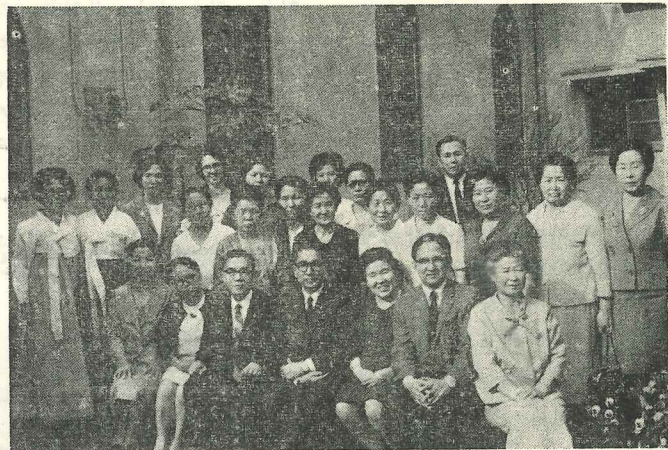
간부 연수회 보고

(관서지방회 부녀부장 배기환)

계획을 발표한 교회는 거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관 북부교회에서 관서지방회 부녀부 주최로 이회가 모였다 장소는 본래 아리마온천에서 모이기로 했던것인데 참가자의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북부교회로 변경한것이다 각교회 부인회의 간부 약 20명이 자기 집에서 다니면서 잘 준비된 강연을 듣기도하고 질문도 하여 시간이 짧다싶이 3일간에 배웠다

강사와 강연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선교 60주년 의 뜻" "무교가외교회 최경식 목사" "부인회의 본질" "교회와 사회" "전 연락교회 부목사 홍동근 목사" "부인회의 운영" "히라노교회 정인수 목사" "교회와 사회" "관서 노동자 전문 전도사 金井愛明 목사" "캐나다장로교회 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백인수 선생 (백인도 선교사 부인)" "부인회의 사명" "신기교회 정경희 전도사" 이 연수회의 특색의 하나는 각부인회의 보고였다 각부인회의 과거의 창립일과 업적을 남긴 선배들을 회상하며 보고했다 그리고 현재의 조직과 그 활동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장래의



(연수회 참석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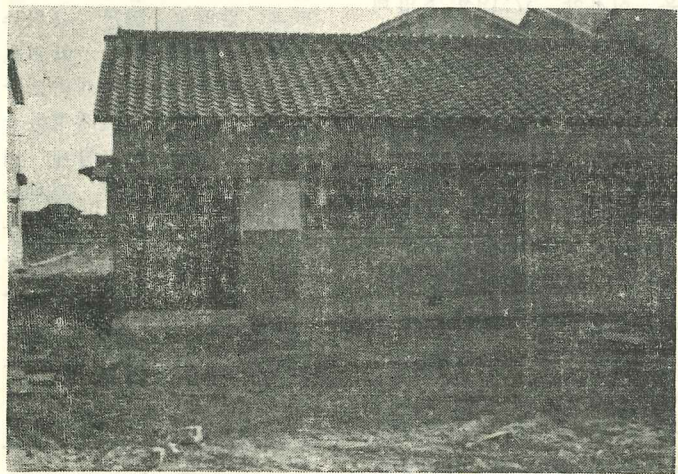
재일본 한국 YMC A 제18회 정기총회

지난 4월 29일 동경에 있는 재일본 한국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1968년도 회원총회가 모였었다 당일 오전부터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계획시간인 오후 2시까지 관서지방에서 먼길에 참가한 40여명의 회원을 비롯하여 정숙수 63명을 넘는 85명의 정회원 이 참석하였다 개회경건회에 이어서 의장 유석준 이사장의 사회로 사업 및 결산보고가 있었고 종교활동 클럽활동 교육 및 장

학사업 문화 및 출판사업등의 다채한 프로그램을 갖기로 한 신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760여만원의 예산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장중 미비한점을 개정하는 건등을 결의후 오후 7시 10분 박명준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신임이사 및 감사명은 다음과 같다

이사 ▶ 유석준 (이사장) ▶ 김광수 (부이사장) ▶ 이소용 ▶ 김봉천 (회계) ▶ 김인배 (서기) ▶ 김광문 ▶ 김봉임 ▶ 오경세 ▶ 장중구 ▶ 김경추 ▶ 김창업 ▶ 장상재 김군화 감사 김한필 ▶ 김재술



明石 전도소 개설

고오배 교회에서는 오래동안 明石지구에 전도소를설치하여 복음선교를 계획해오던바 선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월 3일 주일부터 신자 가정에서 예배를보다가 사진과같은 장소를 얻게되어 지난 4월 28일에 개설예배를 보게된것을 하

나님앞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씩한 클강습회를 시작하여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 이근 설목사 (고오배 개척과 신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님께서 임시로 수고하고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라고있다

상 기 각 성

大阪教会 최 정 수 목사

유월이 닥치오면 해마다 18년전으로 삼개성상을 생사의 경에서 고루하던 6.25를 명심하지 아니할수없다 4300년 가까운 조국 역사상에 비로서 세계 만방에 독립을 알리고 재건에 진력하는 도상에 몇해 못되어 북공남침으로 평화로운 재건의 꿈은 깨어지고 온 민족에게 죽음과 망국의 두려움이 뒤쫓아 다니는 생활속에 오날 생명이 보존된 천신인 기적적인 도움에서 살았다는 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만치의 쓰라린 경험을 듣고왔다 여기서 몇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6.25를 무사히 망치고 신 건설을 위한 꿈과 계획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일본문자에 「소나에 아레바 우레이 나시—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말이 소용없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자한다 이는 일제가 2600년의 역사와 그 힘을다져서 육해공군 천만여군과 군비를 갖추고 영미타도를 「스로강」으로 1941년 12월 8일 미명을 기하여 하와이 진주만 격파를 하였으나 4년이 채못된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으로 일제는 붕괴되었고 우리의 한국예를들면 1950년 4월 4일에 조국시찰을 마치고 돌아온후 총회대표의 보고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완연한 것이있다 이는 당시 우리 한국육군이 38선앞에서 조격연습을 하는 사격이 백발백중이요 이 국군의 위력과 실력으로 국방이 완전하며 국력의 허락만 있으면 북공퇴치와 통일은 역약판화인것 같은 희망찬 기쁨의 보고를 듣고 사격 목격담을 들었고 맘뽕긋이 생각하며 한숨쉬고 기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들은 불과 2, 3일 후에 인공남침이 청청벽역이라더니 6.25새벽 미명에 폭발시력으로 무인지경처럼 수도를 삼키고 3천리 강산 남방부를 몇날동안에 거의 다 도륙하게 되었던것을생각하니 준비가 없어서나아니하여 제국붕괴나 금수의 강토에 피들들인것이 아니다 준비도하고 자신도 있

었으나 결과는반대였다 여기에 우리는 상기와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할터고한다 예수님은 인류를 최종에서 구원하실 대속의 일을 하실려고 십자가에달리실 무섭고 떨리는 일앞에서 겹세마네 동산에 밤깊이 들어가서 진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그 쓴잔을 받는 일 곧 죽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워 지이다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졸고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않게 하여라」 말씀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막14:38구역) 하사 자기 힘에 의지하지 말고 믿지말고 자기는약하니 전능하신 천부님께 기도하여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자기의 무력한 것과 죄인 된것을 각성하여야 한다는것이요 그다음은 상대나 경쟁상대나 사람이나 사회나 정치나 민족까지도 학문하는이나 공업을 하는이나 상업을 하는이나 출세주의자라도 이에각성하고 잘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독생자로 대속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진력분투하며 한탄한탄을 살아가야할 것이다 저는 일시라도 잊을수없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학창시에 군사교련의 교관인 자칭 만년대좌라는 일제육군 참모본부 근무의 진실한 그리스도교인이었던 아지로 대좌의 말씀이다 그는 참모본부에서 양심적으로 발의를 하는고로 승급을 못하고 다른 동급생은 소장 중장 대장까지되는데도 면직도 시키지 아

니하면서 대좌 그대로 전쟁이 점점 치열하여 갈때에 강화시간에 눈물겨워하면서 목메인 말로서 차대를지고 우리 일본을 세워야할 젊은 제군에게 말한 다 하면서 준준히 말하기를 군사적 승리는 군법비결이 있는때
(1) 자기를 알아야 한다
(2) 적을 알아야 한다
(3) 그리고 이길 자신이있을때 전쟁을 시작하면 승전을 한다고 하였고 비결은
1 자력을 모르고 적의힘을 알고 전쟁을 하면 비결수가 있고
2 자기를 알고 적을 모르고 전쟁을 시작하면 지기가 쉽고
3 자력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전쟁을 하면 받드

시 진다고 그런때 이번(개평양)전쟁은 자력을 잘아는것같으나 실은 자력을 모르고 미국이나 영국의 실력도 모르고 전쟁을 시작하였으니 그다음 대답은 분명한때 지금내가 참모본부의 본관이만할수 있겠느냐 그대들이말로만 알아두어라 공중에서 폭탄으로 내터오는 적을 대창으로 막자고 계획지도 하며 공중에서 몇톤으로 퍼붓는 불을 바켓쓰 리레로 끄면서 전쟁을 이긴다고 하는중이라고 하면서 이 백발은 만년 대좌로서 국제와 함께 분토에 내려가나 다음 이국가 재건과 세계에 전을국가민족건설은 너희들 쌍견에있다고 말했다 (계속)

信徒를 위한 「에베소」 書研究

(12) 尹 宗 銀 (西宮教会牧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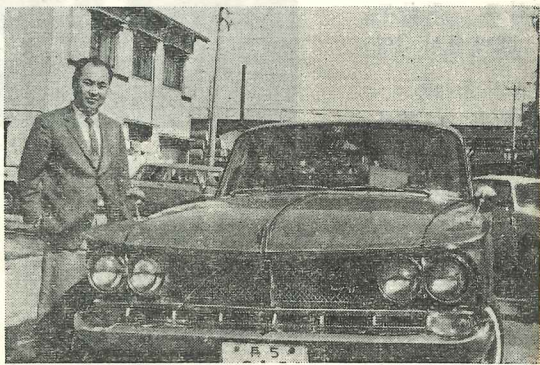
또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내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출6:7)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특권만 말한것이 아니고 의무도 말씀되고있다 또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자였다 사람이 만들어낸 희망은 바람으로 부풀어 바람에 불여가다가

바람에 터져버리는 고무풍선과 같다 그러므로 인간의 희망에는 반드시 절망이 온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희망은 하나님에게 속한것이다 하나님이 계신곳에 참 희망이 있다 이방인 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는 고로 소망이 없었다
(13) 그러나 이제 전에멀리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씀은 이사야 57:19절 「먼데 있는자에게 든지 가까운데 있는자에게 든지 평강이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지어다」를 생각나게 한다 유대교 개종자에게 사용하였다고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가까와진것을 강조하고있다 이사야 57:19절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전에 교회들둘러싸고있던 울타리의 철책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명의 권리를세우셨다
(14) 또 그는 우리의 평화시며 돌로 하나를 만드시오 중간에 막힌 담을엮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에 관한 비유로 이해할수있다 예루살렘성전은 여러층의 마당이 있었다 그 모든 마당한 복판에 성전이 있었다 맨처음에 이방인들의 마당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마당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당 그

리고 그안에 지성소가 있었다 맨처음에 이방인의마당과 유대인들의 마당사이에 담이 있었다 만일 이방인이 그담계를 넘어가면 사형한다는 선언의돌판이 여기저기에 세워있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중간에 담을 세우고 있는 민족이아니다 당시 헬라인들도 아무라도 헬라어로 잘못하면 그 사람은 야만인 이라고 불렀다 중간에 막힌 담은 결코 옛날 세세에만 한한문제는아니다 오늘에도 민족과 민족사이에 담과와담파사이에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담들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문어졌다 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것을 가능케하셨다 인류의 불화를 화해케하는 평화는 그리스도와함께 시작 되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활동과 주권에 달렸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과 생명을 함께 죽음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담을 없애버릴 능력을 가졌다

총회에 자동차를

기증



고오베교회의 윤용남집사님은 총회 전도용으로 자가용 한대를 기증하였다 윤집사님은 福山고무화학주식회사 사장이시며 고오베교회 집사 시무도 10년이 상되시며 교회봉사도 충성스럽게 하시고 계시다 60주년을 맞이하여 전도에힘쓸려고하는 총회에 전도용차가 없어서 되겠는가 걱정하시며 기도하시던차 자기 자가용을 총회에 바치

기로 결심 하신것이다 차명은 프린스이며 현재이차는 선교사 맥인도 목사관 차고에 두고 총회 지방회의 전도에 분주히 매일 출세없이 달리고 있다 총회원 일동은 윤집사의호의와 기대에 어기지 않도록 전도에 힘을 결심할가 지고있다 (사진은 기증하신 윤용남집사와 프린스차)

선교60주년 기념식 전 시일 장소 결정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선교60주년기념식전이 10월10(목) 오후2시 대관여학원차펠에서 거행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그때 내외 각교파대표의 출석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대히 거행할 예정이니 전교인이 출석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준비위원회)

新しい心、新しい霊

WCC・ペンテコステ・メッセージ

わたしは新しい心をあなたがたに與え、新しい霊をあなたがたの内に授け、あなたがたの肉から、石の心を除いて、肉の心を與える。わたしはまた、わが霊をあなたがたのうちに置いて、わが定めに歩ませわがおきてを守ってこれを行わせる。

エゼキエル36・26～7

世界教会協議会(WCC)の第4回大会は7月4日から20日までスウェーデンのウプサラで開かれます。この大会の主題は「みよ、わたしはすべてのものを新たにする」(ヨハネ黙示録21・5)というあの勝利にみちた神の御約束であります。

私ども世界教会協議会の議長団は、聖霊降臨日を迎えるにあたり、皆さま方が、物事を真の意味で新たにできるただ一人の方である神の御霊を私どもとともに祈り求めて下さ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新約の中に記された神が全てのものを新たにし給うという革新の約束は旧約に根ざしています。預言者エゼキエルはバビロンにある捕囚たちにこの約束をのべ伝えました。しかし、彼は同時に、イスラエルの民が父祖の地に帰ることによって、その国民生活に自動的に、創造的革新がもたらされるわけではないことを警告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はまず、過去の誤った欲望や不正がすっかり清算されねばなりません。彼らの頑くかな心のかわりに、神からのみ與えられる新しい心と新しい霊が必要なのです。神は、彼らに自らの聖霊を給い、枯れた骨のような彼らの共同の生活がふたたび肉をまとうてよみがえり、神の民として平和と調和のうちにすごすようになると約束なさいました。

キリスト者は、聖霊の降臨した日、ペンテコステにこそこの預言が成就しはじめたのだと信じています。イエスに従うものたちが、神の聖霊を受けたのはこの日だったからです。そして、生活を共にしつつ神の愛を实践しようと求めるあらゆる年齢の人々から成る一つの新しい共同社会—教会—がここに生まれました。

私どもはこの御霊が教会の中に今も働き給うことを感謝しています。しかし、それと

ともに、私どもはキリスト者の欠点や分裂によって、あまりにもしばしば御霊の働きが妨げられて来たことに対して神の赦しを求めるものです。枯れた骨すらよみがえるのなら、私どもの石の心もまた変えられるであらうでしょう。

私どもはまた、神の御霊がこの世において働き、社会を内側から変革し、人と人、国と国の関係を造りかえる様を目にしたことを神に感謝しています。すべてのものを新たにし給う御霊は今日、正義と平和、教育や開発を求める人間の共同の努力の中に働き給います。神の御霊があらゆる科学や技術の進歩の中にも働き給うゆえに私どもは人間の物質的な必要をみだし、世界の共同と協力への地盤を備えることが出来るのです。それゆえに、私どもは、あなた方

神の民が、教会の一致と革新さらに世界の一致と革新を求めて祈るよう呼びかけます。

私どもの仕事は祈ることだけではありません。エゼキエルの使信の中では、社会の変革は、回心のしるしとして與えられるものでした。もし神が私どもに、新しい心と新しい霊を與えられたのであれば教会における私どもの祈りと世における私どもの行為とを神は求めて居給います。この聖霊降臨の日を私どもの個人の生活の革新の日としましょう。しかし、それとともにこの日を、神の民のそれぞれの群れが、社会の革新のために愛をもって実際に行動すべく身を献げる日としようではありませんか。

(世界教会協議会議長団)
(七月の大会にはテビス宣教師が出席します)

小さな種と私達

聖書 コリント 1、3:6

梅雨になると、お百姓さんはとても喜びます。何故かと云うと、それは、畑の中になっている、色々なものが、また一段と大きくなるからです。それから、もうすぐすると田植えがありますが、その為にも、梅雨はとても大切なのです。今頃は、野菜がたくさんありますね、キャベツとかきゅうりとか、新鮮なものをそのまま食べると、とてもおいしいです。野菜ばかりでなく、最近は花も沢山咲いていますね。ついこの前はつつじがとてもきれいでした。また今はバラが美しく咲いています。本当に美しいですね。でも、これらのものはつい先頃はまだまだ畑の中で大きくなっているのですが、それが、今ではもうすっかり大きくなって、八百屋や花屋の店先をかざっているのです。畑の中で、太陽の光にたたらされ、雨の水を吸い、肥料をかけてもらってそれでぐんぐん大きくなったのです。でも大きくなる前はこんなに小さな種でした。それが、土の中に入り、太陽の光にたたらされ雨の水を吸い、肥料をかけてもらって野菜にな

り、花になったのです。小さな種から、おいしい野菜になったものは、私達がそれを食べて大きくなる事ができます。きれいな花になったものは、私達が見て「きれいだなあ」と思わしてくれます。またこの世の中を花で美しくかざしてくれます。あんな小さな種から、こんなに色々役立つものが出来るのです。そうして考えて見ると、その小さな種が不思議に思えて来ます。でも小さな種は、石とよく似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その石も種と同じように、土の中に入れ、太陽の光にたたらされ雨の水にあたり、肥料をかけてやったら野菜になるでしょうか。花になるでしょうか。もちろんなりませんね。でもどうして、よく似た種と石なのに、また同じようにしてやったら種だけ野菜や花になり石は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一体、種の中には何があるのでしょうか。それは、種の中には大きくなろうとする力があるからです。種は生きていて生命を持っているのです。ではこの生命はだれが與えて下さったのでしょうか。総理大臣

ですか？お百姓さんですか？それは私達の神様が與えて下さったものなのです。神様はまた同じ様に、私達人間にも大きくなろうとする力、生命を與えて下さっているのです。だれでも最初は赤ちゃんでした。その赤ちゃんは、食べる事も服を着る事もみんなお母さんにしてもらいます。人に何かしてあげる事などできません。赤ちゃんは、土の中に入って、ほんの少し芽が出かけた位かもしれません。幼稚科のみなさんは、土の中からかわいい芽が三センチ位出て来たところかもしれません。そして小学科のみなさんは、それよりもっと大きくなっており、葉が二・三枚ついた頃かもしれません。中等科や高等科のお兄さんやお姉さん達はそれよりも、もっともっと大きくなっているでしょう。このように神様は大きくなる生命を私達に與えて下さったのです。下さっただけではなく、これから、ずっと大きくなるように見守って下さっているのです。大きくなろうとしている途中で、もし弱くな

った時は、神様は強く激ましてくれまします。くじけたりした時は、また新しい勇気を與え大きくなりなさいと助けて下さいます。そしてみんな利様の子供になる様望んでいらっしゃるのです。野菜が私達の成長に役立つように、花が私達の心をやさしくしてくれるように、私達もそのように何かできる事を神様は望んでいらっしゃるのです。種はよい土の中にはいつこそ大きくなり役立つものになるのです。もし種が石の上や道ばたにあつたらどうでしょう。きれいな花を咲かせる事ができるでしょうか、できませんね。

その様に、私達も教会学校に来て神様の事、イエス様の事を知り、それによって、はじめて神様の手伝いをする事を知るのです。そうすると教会学校は休めませんね。私達まだ小さいけど、これからだんだん大きくなる事によって野菜や花がするのと同じ様に神様の手伝いができるよう頑張らましよう。

(金 幸 子)

《児童説教》

筋 金 入 り

ヨハネ 20:21～22

「ゴーゴーゴー……」
「あー地震だ！地震だ！あー地面が裂けた。あー家が崩れる助けて……お母さん」
今迄静かであった町や村は、宛如として起った地震のため混乱と恐怖のつぼと化した。十勝沖地震それは忘れることのできない事件だ。宇宙時代と呼ばれる今日まだそれを、正確に予測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ころで、今度の地震で無残な姿をした住宅街の写真を報道しながら、或る建築家の話が大変印象的に残っている。それはこうである。同じブロック建築にしても、

鉄材を従横に、上手に使ったものと、そうでないものとは大きな差があると云うことで

す。
マタイ7章に岩の家と、砂の家の話がありますね。イエスさまの教えを守る人が、岩の家だと云うことですね。イエスキリストと云う土台に建てることですが、この土台は家を建てる時絶対に、忘れては、ならない大切な基礎づくりです。しかし、その上に無造作に家を建てれば、それででき上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続く)

(布施 李昌雨牧師)

金嬉老事件の核心にふれ、韓国人の気持を理解しながら、一人の人間がアプローチした。

「金嬉老事件と少数民族」

新書版 370 ページ
価 格 380 円
発行所 酒 井 書 店



聖書

みたまよ くだりて

ヨハネ 14:25~28

1、今日ほど聖霊の必要を痛感する時代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う。ノイローゼ、社会不安、世界経済の不安定、これらのことを人智で解決しようと涙ぐましい程の努力をするが後退こそすれ前進はないなぜでしょうか。お金で経済不安は解決しないし平和会議で戦争は止まない。なぜでしょうか。神の智慧を受けようとしなからである。(行7:51~53) 聖霊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万事は解決する。(行2:38~40) 弟子たちに対して主は御自身がユダヤ人の指導者によって十字架刑に処せられるが、私はあなたがたを捨てて孤児とはしないで、父に願って別に助け主、即ち聖霊を送って私が今生きて神の言によって養ってあげたと同じように保護してあげるといわれた。(ヨハネ14:16~18)

2、主は御在世当時に立派な学者やパリサイ人の教えることのできない権威ある教訓とダイナミックな力によって弟子たちの信仰生活をまもっておられた。(マルコ1:21~23, 29~31, 40~41) 昔イザヤはイスラエルに救主が生まれて子孫孫に至るまでその民を守り導くことを予言した。(イザヤ59:20)その予言によって主イエスがこの世に来て人類の救いを全うした。(マルコ10:45) 今主のいない時に主イエスに代って聖霊がきて彼らを悩み多い(ヨハネ16:33)世の中に勇気と希望をもって生きる(行1:8)がこの聖霊によって與えられることを主イエスは弟子たちに懇切に教えられた。(ヨハネ15:26, 16:1) 真理のみたまは彼らをあらゆる真理を教え導いて下さる。(ヨハネ16:12~13)

3、この暮しにくい世に聖霊を受けて永遠の平安と祝福のうちに生きたいのが今日の人間のだれももっている切なる願いである。キリストにある人は新しい人間として造り改えられるとパウロは言っている。(第2コリ5:17) ペテロら弟子たちはイエスの復活を見た後もユダヤ人指導者らを恐れて戸を閉じて室内で小さくなっていた程であった。(ヨハネ20:19~26)その恐怖症の弟子たちも聖霊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勇気を出して大胆に

神の御言を語った。(行4:18~20) 聖霊は不安、恐怖、ノイローゼ社会不安の人生の敵を即座に追出す力をもっている。それは私たちが真剣になって罪のざんげと霊的な深い

神との交りを求めるものには必ず聖霊によって充実した信仰生活を続けられる。(ヨハネ4:14)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ロバート ケネディの
死を悼む

問題の深刻さが米国を中心として世界に投げかけられている時、次代の米国大統領に目されていたロバート・ケネディーが凶弾に倒れた事は人類歴史の一大凶事であり一人のアメリカ人の死を悼むだけでなく歴史的な人の死として痛恨に堪えない。相次ぐ暗殺事件で世界の人はアメリカと言う国に対して様々な触覚を鋭くしている。最も一般的なものは、アメリカの威信地に落ちた、アメリカの内部混沌アメリカの内蔵している腐敗等である。しかし真実な眼でアメリカを見つめつゝ次の二点を考えたい。一つは世界にない良心的な一面である。アメリカ人にとって黒人問題が最も世界に暗影を投げかけているものである。然し白系米人にとって最も苦々しい問題でもあって、理論的には良心的課題として正論をほしきまにするが、感情的に又生活的にはできるだけ「ほほかむり」をしたいものである。白人にとって黒人問題を自分の問題とすることは良心的課題としてであって利害の場では裏腹のものである。他の国で若しアメリカのような現実を持った時何うであろうかと思う時、リンカーンのアメリカそして近時、黒人の解放のため生命を懸けた多くの白いアメリカ人のことを思う時、ケネディー兄弟にしても卒直に言ってアメリカの良心であったことを思う。身近な日本のことを思う時、理論的には人種差別に対する正論を主唱する人はあっても、良心に生きその為に自分の利害を度外視してまで、行動した人が居るだろうか。日本に暗殺事件の起らないことは、ほほかむり

の国であるからであり、非良心的な事なかれ主義の国だからであって決して明るい国だから、威信を保つ紳士国だからではないのである。暗殺事件が決してその国の明るさとは思わないが、そうした事が起る程に明るい良心的な生き方をしている国だと言うべきであろう。これを自由の国だと言うことよりも、真実な良心が生きている国だと言うべきであろう。

或人が言った「アメリカはとてもすこやかな面と深い病根の二つを合せ持つ大きな矛盾の国だ」と言ったが、アメリカのすこやかさが、寧ろ暗殺事件として示されるところに思いを深めたいのである。ベトナム戦争に対するアメリカ人自身の反省、強い反撃、そして、巴里会談にまで持ち込ませたアメリカは、大東亜戦争を惨めな敗戦にまで追いやった日本人の個人差と比べて、遙かにすこやかな国であ

り良心の国であると言えるであろう。

今一つはアメリカの深い病根であって、それはアメリカの歴史が生んだ今日的な問題であるが国造りはその国の創始に深い根を下すものであってアメリカの今日の病根は急性病でなく慢性的な根深いものである。ローマは一日でなかったものではないが又ローマの滅亡も一日で滅びたのではなかった。アメリカは植民地を持たない国だとよく人は言うがアメリカ自体侵略した国である。ニューヨークは土人から欺し取った略奪の上に建てられた都市である。自由の天地を求めて移住した国だと言うが真相は奪い取った土地に白人のほしいままな国を造り上げた土地泥棒の国である。ピューリタンの国であると言うがピューリタン精神とは自分の為の清教であり禁慾主義的な信仰であった。信仰に熱心な南部が奴隷売買の張本人であった。信仰は自分の慾望を満たすためのものであって他のために十字架を負う正統のキリスト教信仰でなかった。人類に平等を教えるキリスト教が人種差別の下手人であった。強く良心に従うキリスト教でなくて狂信的な感情の信仰であった。愛に根ざした人格的な信仰でなく盲信に根ざした利益信仰であった。こうした似是非的なキリスト教が基督教国であるアメリカの病根となった。黒人を奴隷にしたアメリカ人が黒人解放の為に南北戦争を起して血の代価を払うた。ユダヤ人を殺した白人がユダヤ人を助けてアラブを敵に廻したと人は笑うのと類を同うしている。アメリカは黒人を殺したので黒人から、のど許に刃をつきつけられているのである。今日のアメリカの深い病根は開国以来

の歴史が植えつけた病根であって、人種問題を根幹として資本主義的な病根、暴力主義的な病根、享楽主義的な病根が広く根を張って医すことのできない病菌を世界にまきちらしている。ロバート・ケネディー暗殺事件で一番騒がれている暴力主義は昨日今日アメリカに生れたものでなく国自体が暴力によって奪い取った国であり(少数の土人からではあるが)開拓精神は暴力精神であり、ギャングの国アメリカがこれを代表している暴力沙汰がアメリカでは茶飯事であった古い歴史の中に根を下したものであった。キリスト教によってすこやかなアメリカが生まれ、同じキリスト教によって深い病根が植えつけられた。蒔いた種は刈らねばならない。キリスト教によって蒔かれた病める種はキリスト教によって刈り取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キリスト教が世界で最も成功したアメリカが一番大きな罪を犯した。それは自己中心の利己的な禁慾主義的キリスト教であった万物は人間の利益のために神が造り給うたように黒人は白人の利益のためにあるのであると、考えたアメリカ南部の人々の信仰であった。奴隷売買は黒人にまさる最大の罪悪であり、人種差別は社会倫理の最大の罪悪である。今日のアメリカの一切の問題の只一つの病根は黒人問題にあると言えよう。ロバート・ケネディーの死を今だけの悲しみと考へない。アメリカが少しでも病根をなくすようになるまで、歴史の中の悲しみとして哀悼を捧げたい。アメリカのキリスト教が真実に悔改めるまで。(終)

(編集委員 田永福)

在日韓国人合唱団
団員募集

世界古今の音楽を学び……

自国の音楽を学び……

そうした中から 自己を見つめ 自己を主張し

自己の人間性を高める

そしてまた より一層の音楽美を探究してゆく

資格 在日韓国人の男女(中卒以上)

格 まじめに音楽を学ぼうとするもの

特に音大生及び経験者は歓迎

入会方法 入会費 五〇〇円、月額 二〇〇円

練習当日、はじまる前に直接お越し下さい

簡単なテスト及び面接があります。

練習日時 毎週火曜日 七時~九時

練習場所 在日大韓基督教大阪北部教会

大阪市淀川区本庄東通二一四〇

電話 三七一 一九一四

指導者 康成安 (大阪音楽大学・서울大学大学院卒)

伴奏者 権秉淑 (大阪音楽大学卒)